

용산“이 정도일 줄은”... 인적 쇄신 나서나

총격 휩싸인 대통령실

여당 참패로 국정 장악력 손상
의대 증원 등 제동 걸릴 가능성
여권 “내각·참모 전원 사퇴해야”



탈어놓았다.

10일 밤 4·10 총선 개표에서 여당의 참패가 확실시되자 용산 대통령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6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분위기는 일순 어두워졌다. ‘범야권의 200석 안팎 압승’ 전망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핵심 참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

생 악화에 따른 정권 심판 심리가 작동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의 표심도 확실히 얻지 못했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110~120석’을 예상하는 참모들이 많았다. 이번 주 들어선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탔다”며 13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돌았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대로만 끝났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윤석열(얼굴) 정부는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당장 패배 책임론이 대통령실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긍정 35% 안팎, 부정

55~60%로 굳어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으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슈 자체도 문제였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집권 중·후반기 국정 운영 가도엔 심각한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면서 당장 ‘의대 증원’ 이슈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국

정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까지 고수했던 ‘야당 배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 같은 협치기구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론된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 인적 쇄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와 대통령실 참모 전원이 총사퇴해야 할 수준”이란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당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에서 개표 상황과 방송사 출구조사 등을 지켜봤다”고만 전했다.

현일훈·박대연 기자



밤샘 개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남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이 이재명 비호감도 능가”

▶ 1면 ‘야당 압승’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3년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치른 중간 평가의 선거인 탓에 더 뼈아프다는 평가다. 2004년 이후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치른 총선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122석 대 123석으로 단 한 석 패했지만, 이후

보수정당은 탄핵을 거치며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4연패를 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는 높고 살기는 팍팍한데 야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만 내는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호감도를 능가했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승리를 거뒀기보다

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초가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정국이 더 경색되고, 극단적 대립 정치가 심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저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탄식 쏟아진 국민의힘 “당이 용산 독주 견제 못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당정간 소통 부족”
당내 “대통령 탈당해야” 목소리도

국민의힘은 10일 찬물을 뒤집어쓴 분위기였다. 예상 의석수가 300석 중 85~105석이라는 숫자가 뜨자 개표상황실엔 장탄식이 이어졌다. 아무도 큰 말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라는 결과가 발표됐을 때 “아!” 하는 탄식이 나왔지만 그뿐이었다.

10분간 상황을 지켜보던 당직자가 TV 소리를 켰다. 가장 먼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를 떴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짧은 언론 인터뷰를 마친 뒤 곧장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서을로 내려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허공을 응시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어섰다. 당직자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다” “예상보다 너무 나쁘다” “최종 결과가 80석대라면 눈앞이 캄캄하다” 같은 말을 했다.

총선 참패가 예상되는 데에는 당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이날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였다. 한 위원장 측근인 김경률 비대위원은 취재진에게 “(당과 대통령실의) 공동책임”이라며 “소통이 안 된다. 다들 (당정 관계를) 말하기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출구조사를 지켜본 그는 대화 도중 몇 차례 울먹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독주를 당이 견제하지 못한 결

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전사가 된 것처럼 소리칠 때 당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정부에 할 말 하는 여당’ 기대를 안고 등판했지만 결국 그도 윤 대통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익명을 원한 초선 의원은 “연이은 인사 논란에 의대 증원 문제까지 정부 실정을 고려하면 100석도 감지덕지하다”며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일(금) 68~51	15일(월) 82~61
13일(토) 69~51	16일(화) 79~66
14일(일) 82~61	17일(수) 82~64

4월 11일(목) 70~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주거비용 때문에 삶의 질 하락

미국인 1/3 휴가 줄이거나 아예 포기
최근 주택가격과 렌트비용이 급증하면서 미국인의 삶의 질이 급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기업 레드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3이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휴가를 줄이거나 아예 포기했다.
1/4은 식사를 거르거나 식비를 줄이고 있으며 15%는 긴급한 치료를 뒤로 미루고 있었다. 20%는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 충당을 목적으로 귀중품을

을 판 적이 있으며, 17.8%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24%는 은퇴연금을 조기 인출하기도 했다.
현재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 대비 20% 이상 상승했으며,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를 웃돌고 있다. 렌즈오 레드핀 선임연구원은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 음식비용과 병원 갈 돈조차 부족한 국민들이 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희생까지 하면서도 오버타임을 감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전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휴

가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Z세대(1997-2012년생)는 귀중품을 팔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선택을 했다. X세대(1965-1980년생)의? 정도는 은퇴연금을 조기 인출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1945-1963년생)의 61.9%가 주거비용 지출에 부담이 없다고 답해,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계층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번 조사는 주택 소유자 및 렌트세입자 29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옥채 기자

“68센트에서 73센트로 우표가격 또한번 인상 예고”

연방우정국(USPS)가 오는 7월14일부터 퍼스트 클래스 우표 요금을 현재 68센트에서 73센트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편규제위원회(PRC)가 USPS의 요청을 승인하면 곧바로 인상 조치가 이뤄진다.
USPS는 작년 9월30일 종료된 2023 회계연도 순손실이 65억달러에 이르러 퍼스트 클래스 우표 판매량이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우표 가격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초 50센트였으나 지금까지 36%나 인상했다.
USPS는 2021년 작성한 10개년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표가격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USPS는 한해 두번이나 우표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는데, 2031년까지 매출 440억달러 추가 달성 목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클래스 우편 물량은 2023회계연도예만 6.1% 하락한 460억통으로 2006년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우편 매출총액은 우표값 인상의 영향으로 5억1500만달러 증가했다.
퍼스트 클래스 매출은 USPS 수입의 31%인 245억달러에 이른다. USPS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적자 누적액이 늘어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4월, 향후 10년간 500억달러 예산 지원 법안에 서명했다.
김윤미 기자



“아이비리그 등록금 연간 9만 달러 넘겨”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비가 9만 달러 시대를 맞았다. 이는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미국 중위소득(7만4580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가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연평균 9만 달러의 학비를 내야 한다고 8일 보도했다.
4년 동안 학비를 모두 지불한다면 35만 달러 이상이 든다는 뜻이다. 학비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학비가 가장 높은 대학은 펜실베이니아대학으로, 9만2288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학비보다 9% 인상된 금액이다. (표 참조) 그 뒤를 이어 코넬대(9만2150달러), 브라운대(9만1676달러), 다트머스(9만1312달러), 예일대(9만975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전년도 대비 약 8~9% 학비를 인상했다.
이처럼 비싼 학비에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지원하는 학

아이비리그 대학 학비

아이비리그 대학	2024년	2023년	증가율
브라운	\$91,676.00	\$84,728.00	8%
컬럼비아	\$89,587.00	\$81,680.00	10%
코넬	\$92,150.00	\$84,568.00	9%
다트머스	\$91,312.00	\$83,802.00	9%
하버드	\$82,866.00	\$76,763.00	8%
펜실베이니아	\$92,288.00	\$84,570.00	9%
프린스턴	\$86,700.00	\$76,040.00	14%
예일	\$90,975.00	\$83,880.00	8%

생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예일대와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올해 9% 이상 늘었다. 다만 하버드대 지원자 수는 5% 하락했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합격자 가정의 소득이 6만~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며 “또한 재정이 충분하다 보니 다양한 장학금도 많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학비 걱정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는 학비가 무료다. 장영화 기자

캡 피터슨 전 의원의 정치 여정 담았다

‘저항자’ 출간 화제
캡 피터슨 전 의원은 주상원의원 전직 친한과 버지니아 주상원의원 캡 피터슨 변호사가 첫 저서 ‘저항자(The Rebel·사진)’를 출간했다.
책은 그가 겪은 16년간의 정치여정을 담았다. 피터슨 변호사는 공화당 다수당 집권당시 공화당 반대파로 정치에 입문하여 민주당 다수당 집권에 이르기까지, 또 그가 원로 상원의원의 위험담을 솔직 담백하게 써 내려갔다.
책에서는 의원생활 속 겪은 여러 경험들, ‘주지사’와의 정치게임, 포춘 500대기업들과 겪은 각종 로비와 두뇌싸움 등의 정치 이야기들이 흥미

롭게 펼쳐진다.
캡 피터슨 변호사는 주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팬데믹 기간 공립학교를 재개하고, 학생들의 마스크 규제를 철폐하는 등 다수의 획기적 법안을 관철시켰다. 철저한 민주당 우위 지역인 북버지니아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아젠다와 정치이념을 실천했으며, 이같은 ‘이력’으로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급진적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편 피터슨 변호사의 출판기념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페어팩스 소재 변호사 사무실(3970 Chain Bridge Road, Fairfax, VA)에서 열린다.
박세용 기자



목회비전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인문학 통해 본 기독교 영성’

워싱턴 교협 목회비전캠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 목사 이하 교협) 주최 목회비전캠프가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욥기 8:11)’를 주제로 지난 1일, 2박3일간 메릴랜드 미들타운 소재 스카이크로프트 센터에서 열렸다.
고석희 목사(예수서원 원장)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 이번 캠프는 인문학을 통한 기독교 영성 및 진리 연구, 폭넓은 설교내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

됐다.
박 엘리스 회장은 “평소 접해보지 못한 ‘인문학으로 본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영적시야와 더불어 지식과 설교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김형주 회계사의 ‘목회자는 퇴플랜’에 대한 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는 유익한 자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협의 추후 일정은 오는 21일, 27명이 참가하는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비롯, 8월 복음화 대성회 등이 예정 돼 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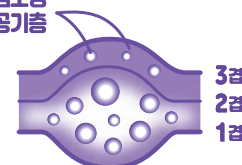
APR. 11th - APR. 18th, 2024

MADE IN KOREA



보들보들 3겹화장지
SOFT 3-PLY PREMIUM T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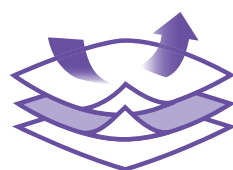
엠보싱
형기름



양면더블 데코엠보싱
DOUBLE-SIDED EMBOSSING



100% 천연펄프
NATURAL PULP



다겹롤타입 화장지
HIGH ABSORBENCY AND CUSHIONING

HELLO HOME
SOFT ROLL TISSUE

~~Reg. \$19.99~~

\$12.99

30 ROLLS/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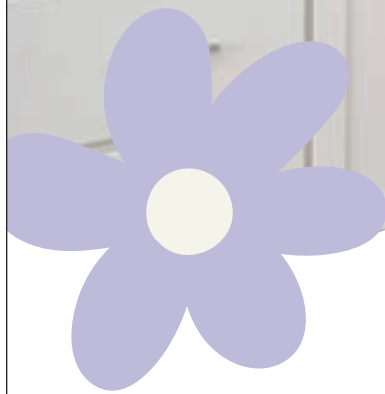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스프링

플링

OPE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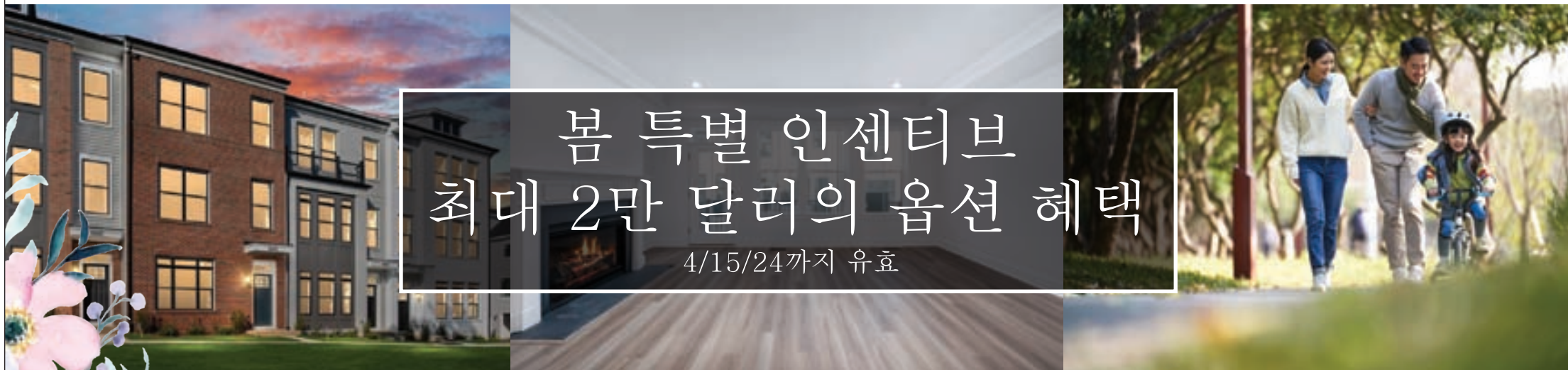


더 타운스 앳 리틀 리버 크로싱

4월 13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1시

7401 Rocky Creek Ter,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주)

리틀 리버 크로싱의 타운스에서 열리는 스프링 플링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세요! 아름답게 꾸며진 타운하우스를 둘러보고,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 푸드 트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아이들을 위한 플라워 크래프트 바를 즐겨보세요!



봄 특별 인센티브 최대 2만 달러의 옵션 혜택 4/15/24까지 유효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세요:

Jonathan Horne | 571-609-8809
jonathan@christophercompanies.com



웹사이트 보기:

christophercompanies.com/TLRC
or scan:



QUALITY BY DESIGN

christophercompanies.com

스캔 및 RSVP



*선호하는 대출 기관을 이용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옵션 또는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3/28/24 - 4/15/24 사이에 계약이 비준된 일부 주택에 한해 제공됩니다. 4/15/24에만 제공됩니다. 다른 오퍼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구조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관련 정보 인센티브, 고도, 평면도 및 이용 가능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컴퍼니즈는 주택 기회 균등 정책을 준수하는 신규 주택 건설업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정계 입문 111일 만에 '최악 성적표' ... 미래 불확실

“선거 전략·메시지·정책 전부 누가 했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 지도부, 한동훈 거취에 말아껴 당 일각선 출국 가능성도 제기

10일 오후 6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 때까지의 다변가(多辯家) 면모는 없었다. 그는 이날 오후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10분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TV화면만 응시했다. 방송 3사가 동시에 여당의 개헌저지선 붕괴를 예고하는 출구조사를 송출했다. 느끼게 갑작스런 한 위원장의 눈꺼풀이 잠시 빨라지는 듯했다. 각지 긴 두 손이 턱밑에서 초조한 듯 달싹었다. 창백한 낮빛으로 어금니를 꽉 깨문 그의 곁에 한참모가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그제야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마지막까지 기적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3연속(20·21·22대) 총선 패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로써 총선을 사실상 원톱으로 지휘한 한 위원장의 성적표도 정계 입문 111일 만에 실패로 결론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 전략, 메시지, 정책이 전무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안간힘으로만 버틴 선거”라며 “처음에는 ‘한동훈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한동훈 아닌 누가 했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물밑에서는 불안 징후가 없지 않았다. ‘후보는 없고, 비대위원장만 있는 선거’라는 후보들의 불만소리가 이날 비극의 암시였다. 수도권 지역 후보는 익명을 전제로 “막판에 한 위원장이 지역구에 한 번 더 온다고 하길래 완곡히 거절했다. 유세차 위에서 마이크를 또 잡아놨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릴레이 셀카

등으로 스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목도를 독식해 정작 지역구 후보 득표에는 실질적 도움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그간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이 개인 선거운동을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선풍리조기 등판했다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정까지 상황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모처에서 조용히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비대위에서 조용히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비대위에서 조용히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비대위에서 조용히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유학 등 출국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본인이 수차례 유학설을 일축하며 “총선이 끝나도 정치 무대에 서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장은 당내 발 붙이고 설 곳이 마땅치 않다. 최장렬 용인대 교수는 “한 위원장은 당연히 퇴장하는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타와 함께 한동훈 연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아노미(anomie·무질서)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임시 비대위 체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TK 지역 의원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상황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로 가는 게 합리적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친윤계 퇴각, 개혁신당과 합당 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여론에서는 지난 4일 한 위원장에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그건 확고한 시선2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회자했다. 이만희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오후 11시 40분쯤 기자들에게 “오늘은 추가 입장 발표가 없다. 내일(11일) 오전 낮에 장소를 따로 공지하고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심새롬 기자

이재명, 정치적 위상 수직상승 호위무사도 대거 입성

여권 잠룡 원희룡 꺾고 입지 다져 “유권자, 윤 정권에 대해 심판한 것” 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은 시험대 사법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굳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승리 기준점인 151석을 상회한 데 이어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선전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 보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비명계와의 갈등 속에 의원 부호가 붙었던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친명 DNA’가 강화된 당 구조는 이 대표의 향후 당장악력을 키우는 요소다.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방어에 나섰던 친명계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대거 생활했다.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서영교(서울 중랑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 위원은 물론 권철승(경기 화성병) 수석대변인, 강선우(서울 강서갑) 대변인, 김영진(경기 수원병) 정무조정실장, 박주민(서울 은평갑) 원내수석 등도 생환해 이 대표를 든든히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질 만한 당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대장동 변호사로 공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인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이 대표의 사법 호위무사로 불린 양부남(광주 서을),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경기 안산갑) 등 전략공천하거나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의 빈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이 대거 약진한 점도 이 대표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친명회제’ 공천이 제기됐던 비판은 가라앉은 반면, 이 대표의 ‘공천 혁신’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대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팔(개혁의 팔) 등 팬덤을 등에 업고 총선 승리라는 성적표까지 손에 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자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대표직 연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이 대표 재(再)추대론이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꿈인 이 대표를 대표직을 더 맡는 게 나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인사도 “당 대표는 언제든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자리”라며 “전당대회를 건너뛰고 대선 준비에 조기 돌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위가 더욱 굳건해진 반면,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의 정치적 공간은 더 좁아졌다. 당분간 당내에선 이 대표의 라이벌이 전무하다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변수로 꼽힌다. ‘한동훈 특검법’ 등을 공약으로 내건 조국혁신당 강성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들과의 연대를 놓고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진보당 인사들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원내 입성하면서 야당 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향후 야권의 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본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 대표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도 총세 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1시쯤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되자 “저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저와 민주당에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화·이기람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재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틀리 지역]



UMEKEN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치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 5대 소화효소 함유
- 지방 분해 리파아제
 -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돌아온 조국’ 13석 안팎 유력... 비례만으로 원내 제3당 확실

(조국혁신당)

조국 “개원 뒤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박은정·황운하·차규근 당선확실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되풀이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의 눈길을 끈 건 단연 조국혁신당이였다. ‘정부 심판론’을 주창하며 총선 한 달여 전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단독 두 자릿수 당선인을 배출해 원내 제3당이 됐다.

10일 오후 5시30분 조국 대표는 주먹 쥔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린 채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입장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30분 전이었지만, 조 대표의 얼굴에선 자신감이 읽혔다. 오후 6시, 조국혁신당이 13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득표율 26.3%)가 발표되자 상황실에선 환호와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린 채 양손을 맞췄고 앉아 있던 조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연단에 오른 조 대표의 첫마디는 “국민이 승리했다”였다. “와” 하는 청

중의 함성과 박수가 찾아들자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일 창당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 민주진보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엔 정권 조기 종식 의지를 담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끝에 부산을 찾은 등 PK(부산·경남) 구애에도 주력했다. “노그들 짚았제?” “이제 고마치아라 마!” 등 정부·여당을 향한 조 대표식 부산 사투리 공세엔 그 두 가지 정체성이 모두 녹아 있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곧장 정부·여당 심판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공약으로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출구조사 발표에 박수를 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놔던 조 대표는 지난 8일 김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200석을 확보한다면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외신 기자들 앞에선 “(정권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게 목표다.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들겠다”(지난달 28일)고

밝혔다. 11일 오전 1시 개표(개표율 25.1%) 기준, 조국혁신당은 23.2%를 득표해 후보 25명 중 1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는 결과를 얻었다. 박은정(1번),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반(反)윤 후보 당선은 확실하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과 연대해 원내 교

섭단체(20인 이상) 구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전 1시 기준 38.4%를 득표했다. 이는 19석을 확보하는 득표율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35.1%)보다 다소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시각 26.4%를 득표했다. 13개 의석을 확보하는 수치다. 같은 시각 제3지대 군소 정당 가운데선 개혁신당(3.2%)만 유일하게 당선인(1~2명) 배출권에 들었다. 녹색정의당(1.9%)과 새로운미래(1.6%)는 3% 미만을 득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할 전망이다.

비례대표 개표는 11일 오전 완료된다. 4년 전엔 총선 다음 날 오전 9시쯤 개표가 끝났다. 개표가 늦어지는 건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사상 최대 정당(38개)이 참여한 데다, 부정선거 의심 방지 차원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전량 수(手)개표해서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오후 5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이 최종 결정된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녹색정의당 0석 쇼크... 새로운미래 이낙연도 낙선

제3지대 정당들 초라한 성적표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맥을 이었던 녹색정의당이 창당 후 12년 만에 원내 입에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 새로운미래도 지역구 1석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정당 득표는 3% 미만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 의석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오후 6시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두 정



이낙연 새로운미래(왼쪽 사진), 김준우 정의당 대표가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있다. [뉴스1·뉴시스]

당의 개표상황실은 약속이나 한 듯 공적으로 침묵했다. SBS 기준으로 새로운미래는 1석, 정의당은 0석을 얻을 것



으로 예상됐다.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를 우려한 인사들이 탈당해 2012년 창당한 정의당

은 창당 이래 최악의 결과를 마주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낙선했고, 정당 투표가 3% 벽을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예상하지 못하고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협조한 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반면에 옛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은 울산 북에서 윤종오 후보가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는 “21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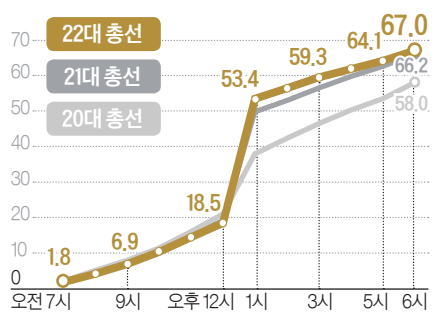
회 의정 활동이 국민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며 “진보를 지키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한 새로운미래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 전 총리는 광주 광산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지며 범야권 잠재 대안 주자로서의 입지마저 위태해졌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도 “정권 심판 구도가 강하게 작동하며 기존의 양당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기정·박건 기자

최종 투표율 67.0%... 15대 총선 이후 28년래 최고 기록

4·10 총선 시간대별 투표율

※오후 1시부터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신고인 수, 오후 6시 기준, 총 선거인 수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 투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0 총선 최종 투표율은 67.0%로 잠정 집계됐다.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7.0%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66.2%)보다는 0.8%포인트, 20대 총선(58.0%)보다는 9.0%포인트 각각 높은 수치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020년 3·9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2%로 가

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67.4%), 울산(66.9%), 경기(66.7%), 강원(66.6%), 대전(66.3%), 인천(65.3%), 충북(65.2%), 경북(65.1%), 충남(65.0%), 대구(64.0%), 제주(62.2%)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야권에 우호적인 호남이 결집한 모양새였고, 여권 텃밭인 대구·경북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런 흐름은 사전투표 투표율이 호남은 높고 영남은 낮은 ‘호고영저’ 현상을 보인 데서 비롯됐다.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

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31.3%였는데, 전남(41.2%)·전북(38.5%)·광주(38.0%)가 가장 높았고 대구(25.6%)·경남(30.7%)·경북(30.8%)은 평균을 밑돌았다.

31.3%로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는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엔 1384만9043명이 참여했고, 이 중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311만7556명(22.51%), 40대가 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 207만3764명(14.97%) 순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맞붙은 주요 격전지의 투표율 상승도 두드러졌다. 서울은 최대 격전지로 꼽힌 동작구 투표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동작갑에서 김병기 민주당 후보와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까닭이다. 경기에선 성남시 분당구 투표율이 76.2%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분당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분당을에선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엇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다.

장서윤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슐라 상담원영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채용 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1차 4/16-4/26 **마감**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 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마감 13박 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마감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마감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아시아 7교회)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요금문의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인사이드)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방콕/파티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시원, 플로세움소, 파티야 아시아,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극독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미안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도 아시아 피피섬, 왓왕릉 사원 코끼리 트래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미파크, 호치민명묘 생원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찌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리오하체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련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레양 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랜드,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아타운, 센토사, 실로스타비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섬, 몬트리올
퀘벡 레이크조지
3박 4일 5/24~5/27 \$89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5/25~5/27 \$650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뉴욕 특선
1박 2일 5/26~5/27 \$450
디럭스 호텔, 브루클린 돔, 베슬, 허드슨아드
옛지 전망대, 스테이크 특식

성극 **다니엘** \$199
5/16(마감), 5/30, 7/11, 8/1

토요 특선 당일투어

네추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 20일 \$109

동부관광

미동부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스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4/22, 6/24, 7/22, 8/5

뉴욕 동부 명소 해안 특선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7/22, 9/16, 10/7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출발**
대형버스 출발일: 7/8, 9/23, 10/21

뉴욕 **뉴욕**
1박 2일 \$399

단풍관광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일: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0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권영세·김태호·정청래 ... 여야 '빅샷' 입지 커진다

22대 총선 격전지에서 당선된 여야의 '빅샷'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정권 심판론을 뚫고 뺏지를 달게 된 이는 나경원(서울 동작을)·권영세(서울 용산)·김태호(경남 양산)를 당선인이다. 당장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곱 번이나 지원 유세를 했던 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누르고 5선 고지에 올랐다. 정권심판 프레임이 지배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상징성도 나 당선인의 당권 도전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여성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20여년 간 주요 당직을 두루 지내 당심과도 친숙한 인사다. 특히 지난해 3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대표되는 친윤계의 조직적 비토를 당해 '비운' 꼬리표를 달게 된 젊은 현



나경원



권영세



김태호



정청래

시점에서 나 당선인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영세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가 된 용산을 지켜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기간 처음과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용산을 찾았을 만큼 정권 심판의 바람이 거셌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당선인은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공약으로 정권 심판론에 맞섰다. 권 당선인은 "여당

중진 후보가 뽑혀야 각종 개발 현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권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남권에선 경남 양산에서 당선된 김태호 당선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존 지역구(산청-함양-거창-합천) 대신 부산-경남(PK)의 대표적 합지인 양

산으로 차출됐다. 김 당선인은 같은 경남지사 출신의 현역 김두관 민주당 후보에 밀린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4선 고지를 밟았다.

이번 총선에서 PK는 대구·경북(TK)과 달리 더는 보수 진영의 텃밭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만큼 당내에선 김 당선인의 당권 도전 명분도 충분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의 합지 차출 요청에 "낙동강 벨트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며 흔쾌

히 지역구를 옮긴 점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당 여론이 많다. PK에서는 중량급 있는 여권 인사가 김 후보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범야권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PK 출신 조국 대표의 존재도 이런 여론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 마포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당선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정 당선인은 국민의힘에서 '586 심판' 프레임을 내세워 마포에 전략공천한 운동권 출신 함윤경 후보를 넉넉히 따돌리며 한강벨트에서 입지를 다졌다. 20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던 정 당선인은 21대 국회 입성 후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이재명 지도부의 핵심으로 활동해왔다. 당내에선 정 당선인이 친이재명계에서 탄탄한 입지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기정·이창훈·성지원 기자

정동영, 5선으로 국회 복귀 ... 박지원, 81세 역대 최고령 당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련한 원로의 국회 복귀가 눈에 띈다.

전북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5선 고지에 올랐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MBC 기자·앵커를 지낸 정 당선인은 1996년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16·18(재보궐)·20대의

원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령민주신당(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를 거쳤다.

정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 이 대표는 과거 정 당선인 팬 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았다.

정 당선인은 "기쁨보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한 윤석열 정권



정동영

박지원

(지역구)

을 종식하는 선두에 설 것이며, 주름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인(민주당)도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선 고향 진도가 속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DJ의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공보

수석·정책기획수석·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1942년 6월생인 박 당선인은 역대 최고령(81세) 의원이 된다. 당선 직후 그는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보완하는데 경험과 경륜을 쏟겠다"며 "지역발전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해남=최경호 기자

이준석 '3전4기' 국회 입성 ... "차원이 다른 정치하겠다"

서울 노원병 등서 3차례 낙선 고배 당대표로 대통령당선도운 후 탈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따돌리고 4수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11일 오전 1시40분경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의 국회 입성 과정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

음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 당선인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 나이로 현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되며 정치적 중앙감을 키웠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친윤계와 갈등을 빚은 이 당선인은 2022년 7월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해 직접 대표를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선거 과정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 2월 개혁신당은 새로온미래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와 합당했으나, 합당 11일 만에 결별하며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이 과정에서 탄탄했던 '이대남' 지지층도 흔들렸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공 후보가 이 당선인을 크게 앞섰기도 했다.

그러나 공 후보가 2017년 군인 신분 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이 당선인이 공 후보를 바짝 따라잡으며 마침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정치권에선 "이 당선인의 국회 입성이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 가장 뼈아플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당선인도 총선 전날인 9일 유세에서 "누가 당선돼야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약주 술 맛이 제일 떨어질까 (주변 지인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당선 확정과 관련해 지지자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존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1)

물어봐 달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존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바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윤 대통령이 곰곰이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한곳에서

2023 A Return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후배들에 건축 여행 장학금 고국에 빛진 마음 갚는거죠”

재미건축가 김태수, 33년째 장학사업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 설계 경력 여행 장학제 30주년 기념집도 출간

지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도시건축 전시관 도서관에 국내 건축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모였다.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을 설계한 우규승씨를 비롯해 최두남 서울대 명예교수, 민현식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김미현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이사장, 전봉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이하 ‘김태수 장학제’)의 30주년 기념집 『포트폴리오와 여행』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의 시발점을 마련한 재미 건축가 김태수(87)씨도 8년 만에 한국을 찾아 자리를 함께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 관훈동 금호미술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등을 설계한 김씨는 1991년 장학재단(T. S. 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을 설립하고 젊은 건축인의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그가 설계해 1986년 개관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를 만났다.

“당시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는, ‘고국에 늘 빛진 마음이 있었다. 대학 때부터 한국 건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는데, 196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미국에서 줄곧 활동해 왔다. 작게나마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장학생은 해외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건축계 실무자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뽑았다. 1992년 첫 수상자를 뽑은 이래 지난해까지 32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처음엔 미화 8000달러를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액수를 늘려 왔으며, 2022년 우규승 건축가가 10만 달러를 기증하면서 1만7000달러를 수여하고 있다.

“왜 여행 장학금인가. ‘미국에서 경험해 보니 건축 대학에서 여행 장학금을 상으로 수여하는 경



자신이 설계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앞에 선 김태수씨.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게 설계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우가 많았다. 당시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건축가에게 여행은 정말 중요하다. 건축은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고 경험해야 한다.”

김씨는 “그동안 선정된 30여명 중 15명의 건축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건축 일을 계속하지 않는 분도 있

다. 하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 받은 건축 교육과 건축 여행 경험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게 우리 모두의 역사이며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70년 코네티컷주 주도인 하트퍼드시에 건축사무소를 설립해

활동해 왔다. 미국에서 ‘벤 블록 주택’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건축을 통해 주목받았고, 1970년대 후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미들버리 초등학교’를 설계해 세계 유수의 건축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밖에 미국 해군 잠수함 훈련학교, 튀니지 미국 대사관 등을 설계했다. 국내에선 교보생명 연수원,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 등을 설계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발달한 건축 문화를 보고 받은 충격이 컸다”는 그는 “그러나 남의 것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만의 것’에 집중하며 차츰 자신감을 얻어 졸업 땀 18명 중 3명 안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웅장한 서양식 건축물을 보며 자라지 않았지만, 조각집 여러 채가 웅기 웅기 모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모습, 웅장하면서도 아늑이한 한국의 산세를 보며 살아온 게 모두 내 자신임을 알았다”고 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의협 차기회장 ‘물밑 협상’ 저격에 비대위 “거짓 선동”

(임현택)

비대위 “정부와 협상 없었다” 반박 김택우 위원장 체제 유지 입장 강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비대위가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한다고 호도하지 말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입장문을 냈다. 임 당선인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재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내 입장문에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냈다”면서 “당선인은 내부 회의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을 향해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며 비대위를 공격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갈 계획이 없다”며 “전 회원이 참여하는 행동의 시작과 끝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김택우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내일 당장, 이번 주안으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사임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회원 대상 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을 재선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내부 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중요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면 향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물러설 때까지 안 된다 식이면 사태 해결이 어렵다. 의료계가 빨리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에 의료계 내분까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소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해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대구 달서갑 유영하, 7번 도전 끝에 승리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으로 입지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 당선된 유영하(61·사진)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유 당선인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7번째 도전 만에 승리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선거에 처음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18·19대 총선에서도 경기 군포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고, 20대 총선에서



유영하

는 서울 송파을 지역에 공천을 받았지만, 당시 친박과 비박 공천 갈등으로 송파을이 무공천으로 결정되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2022년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그해 5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서도 공천 배제됐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로 돌아오도록 돕는 등 오랜 세월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해 ‘박근혜 복심’으로 입지를 굳혔다. 유 당선인은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투표 현장에도 동행했다. 부산 출신인 유 당선인은 대구로 이사회 서부초등학교에 다니다 6학년 때 경기 군포시로 이주했다.

이후 연세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인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전향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물 만난 소녀들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 공휴일인 10일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를 찾은 시민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오늘(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뉴스1]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햇빛’, ‘햇벌’

눈부신 해가 비친다면 이를 ‘햇벌’이라 해야 할까, ‘햇빛’이라 해야 할까?

‘햇벌’은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뜻한다. 태양의 열(熱)과 관련된 것으로, 살갓을 통해 뜨거움 또는 자극의 정도를 느낄 수 있다. 피부를 햇벌에 오래 노출하면 피부가 상하거나 벗겨지기도 한다. “낮에는 햇벌이 뜨거워 아직도 외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 “햇벌에 피부를 그을렸다” 등처럼 쓸 수 있다.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빛을 뜻한다. 태양의 광(光)선과 관련된 것으로, 시신경을 자극해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파이다. 이로 인해 ‘밝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 “한낮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집 안 곳곳에 커튼을 쳐 놓았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비가 그친 뒤 눈부신 해가 비친다면 이는 태양의 광선과 관련된 것이므로 ‘햇벌’이 아니라 ‘햇빛’이 적절한 표현이다.

문제 하나 더. “OO이 강하게 내리쬐는 바닷가에서는 선크림을 바르고 긴팔 옷을 입는 등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에서 OO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햇벌’과 ‘햇빛’ 가운데 어느 것일까? 여기에서는 명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뜨거움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이므로 ‘햇벌’을 써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임상환
LA중앙일보
OC취재팀장·부장

한쪽에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쪽에선 ‘전체 유권자의 5%도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한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 관한 상반된 평가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니 많은 이가 어리둥절할 만하다.

두 주장 모두 맞는 말이긴 하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전체 투표율 62.8%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치러진 21대 선거는 23.8%다. 숫자만 보면 확실히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반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9만29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재외선거 절차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선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에 공관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62.8% 투표율은 유권자 등록을 한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다 공관 또는 공관 외 지역에 마련된 소수의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니, 애초에 투표소

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는 유권자 등록부터 포기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19~21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4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투표율은 확실히 높았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와 미국의 선거는 비슷하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집계에서 지난달 5일 열린 가주 대통령 선거 예선 투표율은 37.7%였다. 등록 유권자 181만9334명 중 68만50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런 방식의 투표율 집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OC엔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선거관리국으로부터 투표용지 샘플과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비활성 유권자가 29만1000여 명이나 있다.

만약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4.7%를 계산한 방식을 대입해 투표 참여자를

등록유권자와 비활성 유권자를 더한 분모로 나누면 투표율은 약 32.5%로 하락한다. 그러나 OC 선거관리국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선거관리국은 유권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올 경우, 해당 유권자를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한다.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된 후 연방 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를 하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명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비활성 유권자라고 해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면 다시 등록유권자로 분류된다.

사실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은 2019년 첫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전부터 더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수를 많이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22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도 세계 각국 한인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헤아려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J네트워크

평리위안과 장칭



유상철
한국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평리위안(彭麗媛)이 제2의 장칭(江青)이 될까?’ 최근 중화권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평리위안이 마오쩌둥의 마지막 동반자 장칭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계기는 지난달 24일 평여사의 후난성 창사 방문이다.

평여사는 세계보건기구 결핵 및 에이즈 예방 친선대사 자격으로 해당 지역의 결핵 예방 상황을 챙겼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한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과거와 다르다는 거다. 우선 고위 관료 동반이다. 이전엔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부주임이 수행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차관급인 후난성 부성장도 대동했다. 두 번째는 사진의 구도다. 과거 사진 속 평여사는 비록 가운데 자리하긴 했지만, 대중과 뒤섞인 모습이 었다. 지금은 차관급 인사 두 명이 평여사와 일정 거리를 두는 구도로 평여사를 두드러지게 부각했다.

이 같은 연출은 시진핑 주석과 같은 ‘유일한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관료적 배치가 짙다. 세 번째는 각별한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예전엔 많은 인파와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엄선된 소수의 사람만 만나 의외의 사고를 예방하는 성격이 강했다. 대만과 미국 언론 등에서 잇따라 평여사가 제2의 장칭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분석이 쏟아진 이유다.

장칭은 1969년 정치국 위원이 됐고 70년대 4인방을 결성해 문혁을 주도했다. 마오는 만년에 가망 있을 수 있는 인물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장칭에게 대권을 물려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오와 같이 절대 권력을 쥔 시진핑 주석 역시 마오의 전철을 따르지 않겠냐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이다. 89년 천안문 사태의 주역인 왕단(王丹)은 “그들 입장에서 가족에 권력을 넘기는 게 이성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말한다.

평리위안과 장칭의 3가지 공통점이 거론되기도 한다. 둘 다 산둥성 사람이고 예능계 출신이며 아들을 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여사의 정계 진출설은 지난해 11월 2일 리커창 전 총리의 장례식 때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평여사가 시진핑 주석 다음으로, 그러나 다른 6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먼저 조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평여사의 정치국 위원 진입 예측이 나왔고 최근엔 국가부주석이 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평여사의 정계 진출설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7년 21차 당 대회 때 실현될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는데 두고 볼 일이다.

BED BUG

민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주 택 ▶ 식 당 ▶ 상 가 ▶ 건 물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관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시 설

참패한 집권여당, 협치·소통으로 국정기조 전면 혁신하라

4·10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11일 0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80석 안팎을 획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00석을 넘기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공천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야당 대신 여당을 심판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참패는 더욱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민심을 우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초엔 집권 2년도 안 된 시점의 총선인 만큼 국민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해병대 외압 수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면서 지지층 이탈이 가속됐다. 지난 2년간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순직 등 국가적 비극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물가고와 의·정 갈등 등 민생 현안 해소에도 실패해 불통의 이미지가 축적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유권자가 결국 레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드러났지만, 혁신을 거부한 채 야당 공격에만 기대며 시간을 허비했다. 올 들어 24차례나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었지만 성난 민심을 어루만지진 못하고 겉도는 수준에 그쳤다.

**불통·독선에의 매서운 심판, 겸허히 수용해야
경제·국제정세 위기 극복 위해 야당과 협치를**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수직적 당정 관계나 야당과 대결로 일관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소통과 대화, 공감 능력을 발휘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런 만큼 먼저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정 협치 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통합과 소통형 인재들로 채신할 필요도 절실하다. 국민의힘 역시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 민심 대신 '용산'만 쳐다보며 거수기 노릇을 해 온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나 3년 뒤 대선도 희망이 없다.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고물가 등 우리를 둘러싼 난제들은 정부·여당이 한시도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등 국제 정세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남았다. 겸허한 성찰과 함께 국정 기조를 혁신하고 여야와 소통·대화하면서 나라 안팎의 난제들을 풀어간다면 총선 참패가 오히려 국민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압승한 야당, 이제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의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혼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심판 욕구가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평소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호평이었다기보다는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너무 들뜨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의석엔 거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입법부를 명실상부하게 장악했다. 그 때문에 동시에 이전 국정의 큰 책임을 떠안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만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4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독주나 탄핵안 남발을 22대 국회에서도 관성적으로 되풀이할 경우 국가적 대혼란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심판은 다시 야당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4년간 이론 의정 실적이 뚝도 무지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승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을 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이 대표 본인의 대선 가도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대한 사회적 현안은 민주당도 독자적 입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기 기대한다.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정부와 의사들의 중재자 역할을 민주당이 떠맡으면 어떨까. 그런 성숙한 제1당의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될 국민연금 등의 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원내 과반 1당인 민주당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였음에도 이 문제를 손놓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대책을 비롯한 노동개혁·교육개혁 등 민주당이 능동적으로 나서 해결해 줘야 할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 대한 당부도 빼놓을 수 없다. 조국당은 선거 기간 중 1호 공약으로 22대 국회가 열리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보복 논란만 야기할 게 뻔한 정략적 법안을 밀어붙여 새 국회 초반부터 정국을 경색시키는 건 민생, 국리 민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 뿐이다. 조국당도 이제 원내 정당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숙한 국정 동반자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참패가 남긴 것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1 선거는 기세, 인물, 구도의 세 요인으로 결판난다.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2승1무였다. 일단 기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돌풍이 앞섰다. 1승. 민주당의 '비명횡사, 천명횡재' 공천 덕분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2승. 다만 구도는 '정권심판론'과 '운동권 청산론'의 팽팽한 무승부. 결정적 변화가 생긴 건 3월 중순이었다.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던 3월 10일, 이른바 '이종섭 도주 대사' 사건이 터졌다. 정부·여당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줄 정말 몰랐다고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007작전 하듯 출국시켰다. 무지와 무능이 합체된 결과는 무방비 상태의 지지율 하락. 이때 우물쭈물, 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한동훈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검찰 재직 때부터 '수사는 기세'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기세를 보여 달라"고 했던 게 한동훈. 그 기세가 힘을 못 쓰게 된 순간, 바람은 순식간에 이재명으로 방향을 틀었다. 1패. 구도 또한 '운동권 청산'을 외치다 돌연 '아·조 심판' '범죄자 심판'으로 오락가락 영키다 보니 한 길을 간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뒤집히고 말았다. 2패. 공천 국면이 진정되자 인물론은 그 나물애 그 밥처럼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무승부. 그래서 국민의힘의 1무2패.

#2 참패를 면할 막판 기회는 있었다. 열흘여 전부터 '양·김(양문석·김준혁) 효과'로 국힘이 상승세를 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변곡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결정적 한 방은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다. 99%는 '어디서 감히!'였다. 이런 대통령의 '가르치려 드는' 태도에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던 중도 지지층이 '막판 쓰악'을 했다고 본다. 생방송으로 담화를 지켜보다 데자뷔를 느낀 장면이 있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과 기사다 일본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장. 일본 기자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안에 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한

동안 설명한 뒤 미소를 머금은 채 질문한 기자를 뻔히 쳐다보며 말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일본 기자들은 움찔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수 가르치듯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바른 말을 알뜰하게 이야기하는 게 한동훈, 틀린 말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모든 말을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이란 항간의 말에는 뼈가 있다.

#3 총선은 끝났다. 역대급 비호감, 역대급 저질 선거였다. 당선된 후보에겐 잔인할지 모르나, 앞으로 4년간 이들을 봐야 할 국민은 고역이다. 냉정하게 보자. 우리가 치른 최근 30년의 총선 중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이라고 안 불린 적이 있었던가. 늘 도돌이표였다. 국회

**입법·행정부 파워게임 불 보듯 뻔해
앞으로 3년이나 '데드덕' 봐야하나
연정이건 내각제건 정치 틀 바꿔야**

의원의 질은 떨어지고 나라 전체가 극단적 진영 대립으로 치달았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단두대 매치'다. 22대 국회도 협치는 기대안방이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체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늘 틀어져 있고,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을 낚은 임기 내내 '데드덕'으로 놔두는 게 정당일 순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연정을 하건, 내각제로 바꾸건 하루속히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내각제로 가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총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맞다. 한때 일본이 그랬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5년간 한 발짝도 정치가 앞으로 못 나갈 바에야 차라리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다.

또 그런 시행착오 속에 정치도,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타협과 대화를 모색하는 법이다. 그걸 잘하는 지도자는 오히려 통련한다. 독일과 영국이 그랬다. 나아가 연정이거나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국민성이 공통적으로 타협과 절충에 능한 건 우연일까. 아니다. 모든 것에 우연은 없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p>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p>	<p>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	---

본사 인쇄: 제1차 인쇄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환주당시 미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년대일 **703-354-1515**
 2층소매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4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돌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체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산림욕 효과
 슬림핏질 찜질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천연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습수 전자파 완전차단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 대리점

월단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이영양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친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3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기기를 채우고 피톤치드 쏙 빼!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Q**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에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꺼풀, 이물감, 부연사,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열힐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공급/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정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 온수매트

물가안정
55탄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APR.11th - APR. 18th, 2024

바삭바삭 고소한 세일



부침가루/튀김가루
BEKSUL CRISPY SPECIAL SALE



Don't miss
this chance!

백설 부침가루/튀김가루
Korean Pancake Mix /
Frying Mix

2 ^{EA} FOR 500
2.2 LB

본점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시장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Pajar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18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855 McIntos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00 Basin Street,
Herndon, VA 20170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65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302 Lee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Silver Spring, MD
13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5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11,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HOA 재정상태·관리비 꼼꼼히 따져라

콘도 구입 어떻게 할까

은퇴 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콘도. 콘도는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관리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가주가 아닌 타주 혹은 LA 외곽에 거주했던 이들도 은퇴 후 한인타운이나 타운과 가까운 LA 인근에 주택 구입 고려 시 콘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막상 콘도 쇼핑에 나서보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영향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려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콘도 구입의 장단점 및 콘도 구입 시 고려 사항을 알아봤다.

▶콘도란

콘도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은 독립형 건물인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는 공동 주택이다. 즉 콘도는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는 형태인데 아파트처럼 공용공간은 있지만 이를 다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또 HOA(Homeowners Association)가 있고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이 많은 경우 관리비가 꽤 높을 수 있다.

▶콘도 vs 타운하우스

이 둘의 공통점은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며 HOA를 통해 커뮤니티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처럼 임대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해 홈오너가 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싱글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운하우스가 한 건물에 한 가구만 거



콘도 HOA 관리비는 콘도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unsplash.com 캡처)

FHA 승인 매물 구입해야 대출 원활 1년내 특별수리비 발생 여부 살펴야

주하는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다세대 주택이 입주해 있다는 것이다.

▶장점

콘도는 주로 도심 가까운데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에 레스토랑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도 구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홈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부동산 가치 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주택이 콘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그러하듯 콘도 역시 해당 지역 집값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레드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콘도 가격은 2018년 5월 24만4800달러에서 2023년 5월 33만8440달러로 38.25%나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외에 콘도는 HOA 관리비에 조정 및 정원 등을

관리해 주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것도 장점. 또 치안과 방범 시설이 잘 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도 콘도 거주 장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정원 등 공용 시설이 있을 시 이를 이용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단점

콘도 구입 시 단지 집값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HOA 관리비는 콘도 구입 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보안 시설, 공용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과 같은 부대시설 유무에 따라 월 관리비가 100~10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HOA가 잘 운영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관리비 체납 가구가 많다면 HOA가 자금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현

재 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도 구입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중 하나는 HO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배관, 냉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시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또 단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가 게시될 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이웃 세대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동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나 이웃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LA 인근 콘도에 거주했던 한 입주자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개들과 마주칠 때마다 난폭하게 짖어 엘리베이터에 그 개들이 타고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해 고충이 컸다”며 “결국 이 문제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 3면 '콘도'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비, 9000 SF, VA 현트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에난델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엘리자베스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주 택	투자 컨설팅	주벽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재원 렌딩 서비스	콘도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지난달 4~11일 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신뢰 회복의 길은 멀었다.” (3월 5일 ING그룹 보고서) “확장 재정, 부동산·소비 부양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실망했다.” (3월 6일 골드만삭스 보고서) 고도성장을 끝낸 중국에 디플레이션 위기감이 불거지는데도 화끈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회가 밝힌 경제정책의 행간에서 중국 증시의 기회를 살펴봤습니다.

증권가가 주목하는 중국 기업

- 폭스콘**
 - 주요사업 서버, 통신장비
 - 주목 받는 이유 정부의 기술 혁신 정책 수혜
- 웨이얼반도체**
 - 반도체
 - 중국 CMOS 이미지센서 1위
- 북방화창**
 - 반도체
 -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 강소장전테크놀로지**
 - 반도체 장비
 - AI칩 시장 확대 수혜

텐센트

- 인터넷
- 인공지능 기술

바이두

- 인터넷
- 인공지능 수위화 확대

CATL

- 2차전지
- JP모건, 목표주가 상향 조정

푸타이라이

- 2차전지 소재
- 음극재 사업 실적 기대

핀뉘뉘(PDD)

- 이커머스
- 플랫폼 테무의 고속 성장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한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된다. 중국은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중국 증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의 냉소적인 평가에도 중국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월 5일 저점(2635.09)을 찍고 한 달 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회 이후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을 뿐이다.

여기엔 중국 증시가 현재 밑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조만간 반등할 거란 전망이 깔려 있다. 중국 증시는 2021년 9월을 고점(3715.37)으로 2년 반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이젠 내릴 만큼 내렸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와 이에 따른 정책 효과도 희망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극과 극이다. 분명한 건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최근 급등한 자산들처럼 적어도 ‘고점에 사는 거 아니냐’를 걱정할 곳은 아니란 점이다.

중국을 올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고 있을 ‘중학개미’를 위해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밝힌 핵심 정책을 분석했다. 모두의 관심이 몰린 투자처보다 잠시 잊혀졌던 곳을 찾아야 저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주식 투자의 오랜 진리다. 중국 증시가 지금 그렇다.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5.2%)보다는 낮지만 세계 주요 기관 예측치(국제통화기금 4.6%, 경제협력개발기구 4.7%, 세계은행 4.4%)보다는 높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가늠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3%로 제시했다.

정부 투자 확대를 위해 초장기(통상 30년 만기) 특별국채를 올해에만 1조 위안(약 185조원) 발행하고, 수년간 발행량을 늘릴 계획도 내놨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등 반드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특별국채를 발행해 왔다.

중국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

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소비 부양책으로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내놨다. 가구·가전·자동차 등 오래 쓰던 내구재를 신형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플러스(AI+) 정책도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15년 리커창 전 총리가 제시한 ‘인터넷+(기존 산업을 인터넷과 결합)’ 정책의 후속타란 해석이다. 외국인 자본 투자를 전면 개방하고 정부가 국유기업의 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중국판 밸류업 정책’도 제시했다. 중국은 이제까지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지만, 증시 부양을 위해 제조업은 물론 통신·바이오 등 세부 산업에 대한 투자 장벽을 점차 낮추겠다는 의미다.

똑같은 발표 내용을 보면서도 증권가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우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에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한다. 같은 5%라도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였다. 이 때문에 올해 5%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5% 내외’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중국 정부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 목표의 하향 조정을 멈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긍정론자의 생각은 다르다. 올해 발행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율은 3.7%로 지난해(3.8%)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시장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내용은 AI+ 정책이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AI뿐 아니라 항공우주·로봇·드론택시·바이오 등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며 “올해 2분기부터는 경기 개선 강도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다’는 혹평도 들려다 보자. 해외 투자은행(IB)뿐 아니라 국내 증권업계

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설을 형성했다. 이들의 시각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다. 먼저 기술 수준 자체에 대한 의심이다. 중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 격차를 좁혀 왔다. 그러나 아직 갖추지 못한 원천 기술 탓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후발 개도국과의 비용 경쟁에서도 밀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중등 기술 함정(Middle technology trap)’이다. 다른 곳도 아닌 중국의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경고다.

결국 투자자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는 부동산과 소비 관련 지표다. 중국의 주택 가격지수는 2022년 5월 하락세로 전환(전년 대비 -0.1%)했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지난해(-1.4%)까지 20개월째 하락 중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202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간 26.8% 떨어졌다. 현재 부동산과 소비 지표는 모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중국 증시는 지난 3년 동안의 하락기를 보낸 만큼 고점 논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투자처다. 아직 더 하락하거나(비관론), 조만간 반등할 것(낙관론)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 증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계속해서 투자 기회를 저울질해야 할 시장이다. 만약 중국 주식 투자를 결심했다면 시장이 주목하는 투자처는 명확히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국가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갖춘 만큼 양회에서 강조한 산업군에 속한 종목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로 AI+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통신장비·반도체 기업이다. AI 서버·통신장비 제조사 폭스콘,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바이두, 반도체 제조사 웨이얼반도체, 북방화창, 강소장전테크놀로지 등이 증권가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라 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방법이다.

김도연 기자

헷갈리는 중국의 ‘현주소’ 양회가 ‘투자내비’ 켜졌다

(주책지수·소비지수)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자이언트 부동산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소더비 센추리온 그룹의 ‘탁월한 인재들’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지역 전문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킹에도 확실히”



센추리온 그룹(Centurion Group)은 TTR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내에서 DMV 지역 전반에 뿌리를 둔 엘리트 지역 전문가 팀이다. 팀원들은 TTR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브랜드에 걸맞은 입증된 헌신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선별되었다.

센추리온 그룹의 각 에이전트는 지역의 다양한 고객을 반영하듯 다양한 개인적 및 전문적 배경을 자랑한다. 팀 개개인은 시장 이해도가 높고, 처음부터 마감까지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며, 뛰어난 소통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팀의 헌신을 보여준다. 팀은 럭셔리가 가격대가 아닌 경험이라고 믿는다. 최첨단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부동산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쪽의 버지니아 주 게인즈빌(Gainesville, VA)부터 DC동쪽의 NE/SE, 북쪽의 메릴랜드주 클라크스버그(Clarksburg, MD)부터 남쪽의 버지니아주 우트브리지(Woodbridge, VA)까지, 우리는 DMV Metropolitan 지역의 전문가다.

TTR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브랜드에 걸맞은 입증된 헌신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선발된 이 팀은 부동산 마케팅 및 판매 분야에서의 정직, 충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류 경험을 제공한다.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 분야에서 거의 20년의 경험을 가진 데이빗은 2017년 센추리온 그룹을 설립했다. 미국 육군 보병 장교로서 23년간 북

무하고 중동 지역에서 5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은퇴 군인인 데이빗은 변호사, 여러 명의 최고 생산 에이전트, 군인 및 군인 배우자를 포함한 팀을 관리하고 있다.

전직 미국 육군 소령으로서 DC 메트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고가 프로젝트의 계약 협상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의 23년간의 군 복무는 군 및 외국 정부의 고위 리더들과의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데이빗은 시스템, 적법 절차, 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3번의 전투 임무 동안 전투 베테랑이자 작전 부대 지휘관으로서, 그는 장애물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사람들과 도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5번의 전투 임무와 함께 한국의 DMZ에서 2번의 투어를 한 공수 레인지로서, 그는 어떤 부동산 거래도 만족스러운 결론으로 이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16년간 부동산 전문성을 갈고 닦은 그는 각 TTR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팀의 최고 인재들의 강점을 결합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와 마케팅을 효율화하기 위해 Centurion Group을 결성했다.

또한, 데이빗은 조지타운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를 졸업했다. 그는 다운타운 육군 및 해군 클럽에서 매월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며 동문 원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군사 장교 협회의 종신회원으로서 그는 국가 수도 지역의 베테랑과 현역 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소더비 그룹 센추리온 그룹 Q&A

“한인 고객들과의 관계에 올인...
미국 최고 럭셔리 부동산 그룹”



-소더비 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알링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고급 주거용 단독 주택과 투자자를 위한 다가구 주거용 아파트 건물이 그것이다.”

봐 고민하는 고급 주거 부동산 판매자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고급 마케팅과 대리는 물론 한국 문화와 언어의 뉘앙스에 대한 이해까지 제공하고 있다.”

-자랑할 만한 핵심 기술과 경험이 있다면?
“페어팩스, 알링턴, 몽고메리 카운티, 워싱턴DC의 최고급 주거용 주택 판매 및 콘도 등의 판매에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다. 고객들의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와 혜택 역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장점 중 하나다.”

-워싱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 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한국어로 의사소통 및 상담이 가

능한 유일한 럭셔리 주거 및 투자 부동산 팀이며, 한국인 모기지 뱅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일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예로 든다면?
“럭셔리 시장 부문의 정점인 TTR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에서 활동하면서 5년 연속 ‘베스트 워싱턴 노인’을 지정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 팀이다.”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개발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나?
“개발사 고객과 함께 여러 부동산을 설계하고 바이어 소임을 통해 바이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와 개발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협업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장하는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연중 무휴 24시간 원하는 질문들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에게 매주 자세한 업데이트를 보내드리고 있다.”

-고객과 함께 일할 때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다면?
“고객과의 투명성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고객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신뢰를 얻게 돼 전체 판매 프로세스를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고객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결이 있다면?
“부동산 판매 과정은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객과 장기적인 친구가 된다고 자부한다. 고객 거래가 성사된 후에도 가끔씩 선물을 보내거나 식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된 후에도 말이다.”

-끝으로 센추리온 그룹(Centurion Group)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Integrity, Loyalty, and Expertise! (정직, 충성, 전문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토이다.” **정리=박세용 기자**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용자”

- 주택용자
- 자영업자용자
- NON-QM
- DSCR용자
- 외국인용자
- 상업용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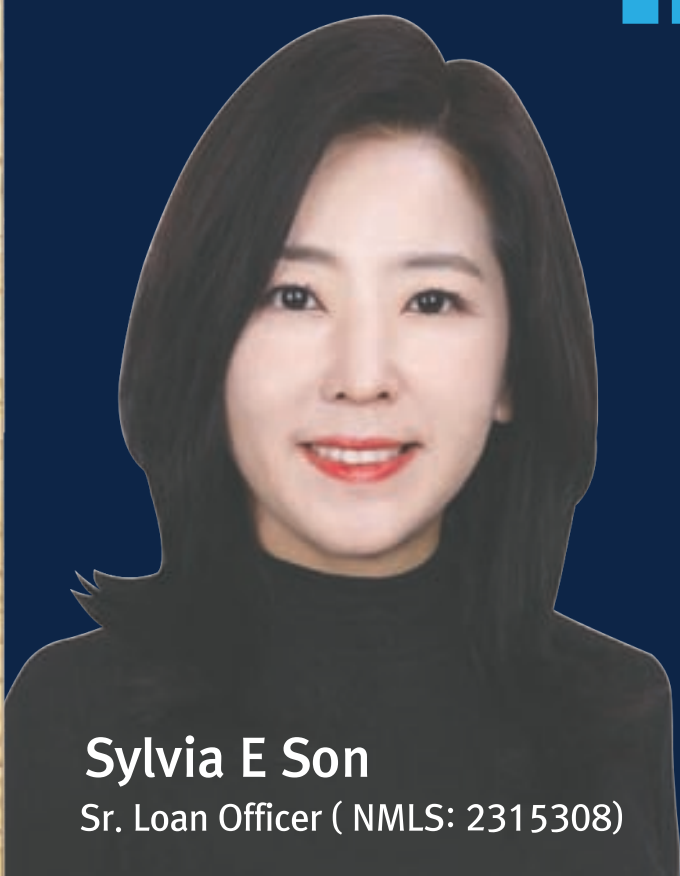
EMET
MORTGAGE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NMLS: 2315308)





THE CENTURION GROUP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Sr. LO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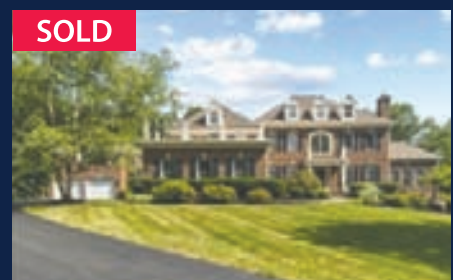
SOLD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SOLD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SOLD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SOLD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 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SOLD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SOLD
LIST: \$2,250,000
SOLD: \$2,125,000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SOLD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SOLD
LIST: \$1,850,000
SOLD: \$1,892,476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SOLD
LIST: \$1,150,000
SOLD: \$1,15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용자 칼럼

최근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중에도 여전히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는듯하다.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매물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오퍼를 쓸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도나도 높은 가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택감정이나 파이낸스등의 조건부들을 다 빼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수 눈에 띈다.

요컨대 주택매매계약시에 바이어를 보호해줄수 있는 조항이라 할수 있는 contingency들, 이중에서 주택감정가격을 조건부로 달수 있는 appraisal contingency가 없이 체결이 되는 계약이 최근 부쩍 많이 보인다.

아무래도 과다경쟁을 보이고 있는 현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실제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다보니, 계약이후 실제 용자진행중에 이뤄지는 주택

감정(Appraisal)을 통한 감정가격이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매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통상 해당 주택 주변 반경 1마일 이내에 최근 3개월 이내에 팔린 비교대상이 될만한 비슷한 주택들(comparable)을 기준으로 해당주택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가격을 매기는것이 바로 주택감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팔린집들의 가격을 훌쩍 넘어서는 신고점을 갱신하는 매매계약 체결이 잦아다보니 치열한 경쟁속에서 높게 이뤄지는 매매 가격까지 주택감정가격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이들이 여기서 혼동하는게

주택감정 면제 (APPRAISAL Waiver)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appraisal contingency없이 주택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주택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Appraisal contingency remove 와 Appraisal waiver사이에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Appraisal contingency remove 는 말 그대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주택감정의 결과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둘사이에 합의한 매매가격에 토를 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주택감정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은행이 결정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셀러간에 감정없이 주택구입을하기로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용자는행이 주택감정을 해야한다고 결정할 경우는 주택감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만일 주택감정가격이 더 낮게 나온다면 바이어는 그 차액분을 감당을 하고 주택구매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것이다.

주택감정에 대한 조건부가(appraisal contingency)없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가끔 주택용자은행이 감정면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Appraisal Waiver라고 한다. 용자는행이 주택감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해당 매매가격을 인정을 하는 경우로서 굳이 따로 감정을 요하지 않고 가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PIW (Property Inspection Waiver), 흔히들 주택감정면제 (Appraisal Waiver)라고 한다.

이 경우는 주택감정이 필요없게 되므로 appraisal contingency 가 빠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감정에 대한 아무런 염려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만일 현 주택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면 반드시 미리 해당주택이 감정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준비가 필요할것이다.

만일 감정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감정 조건부를 빼고 계약을 맺을시에 발생할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들을 위한 대비를 탄탄히 하고 임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를 기대한다.

>문의: 703-868-7147

주택 보험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울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나 가능한 한 부지런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 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 보험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반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 벽 내부분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주택이든 콘도, 타운 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

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분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파해시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산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용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를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 비용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되고 최대 수혜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봐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윤 김·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격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다. 리스크가 많은 시장인 경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고 위험자산 가격이 내리고 안전자산의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리스크가 적은 경제 호황기에서는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안전자산의 가격은 내리고 위험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일례로 금값과 주가는 보통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시 파격적인 감세와 정책으로 기업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지수가 약 30% 올랐다. 반면 안정적인 금 가격은 10%나 내려갔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과 매우 위험한 자산의 대명사인 '주식 및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월 초에는 2140 달러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 또한 6만9000달러를 돌파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S&P 지수, 나스닥 지수, 일본 닛케이 등 주요국 주가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이 동시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년부터 시작했다. 개별 자산이 오를만한 이유는 분명 존재했다.

금값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흥국(중국 및 인도 등) 등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금값을 올렸다. 비트코인 경우 올해 1월 미국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의 상장을 승인한 것과 4월에 돌아오는 반감기로 인해 발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십 수년간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이제 전성기를 지났다. 또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시 랠리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도지

목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 빛이 하루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달러의 대체재인 금, 주식, 비트코인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이유는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 부동산을 위 현상과 함께 살펴보면 미국 부동산 경기의 시그널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은 경제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미국 동부와 서부로 자본과 함께 이주하는 투자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투자 금액에 대한 환금이 자유로워 투자금의 회수가 쉽다. 또한 비트코인 및 디지털 화폐는 미래 재화의 지급 수단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 수단을 통한 최종 목적지는 실물 자산이라는 것. 이는 변함없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즉, 미국은 변함없는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자금이 집중되는 안전한 투자처이자 그중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이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미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는 안전적이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무엇보다 위의 무서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 및 비트코인의 랠리는 더욱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초 안전자산으로 포지션을 승격시켜 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인 낙관론, 과도한 레버리지, 불패 신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모든 자산의 랠리' 시장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땅 들어가 개개인의 집 바로 부동산이다.

제이든 모·eXp 부동산 리얼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ty 1 Maryland. Features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photos, status (e.g., 'COMING SOON', 'UNDER CONTRACT'), and pr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altors Jinny Choi and Stacy Yang. Text: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K기생수' 변종 액션, 상모 돌리기에 따라왔다

넷플릭스 SF '기생수: 더 그레이' 일본만화 원작, 한국 배경으로 각색 인간과 뇌 속 기생생물 공존 그려 축수근육 등 손·팔 아닌 얼굴에 구형 연상호 감독 "시즌2도 이미 구상"



인간의 뇌를 장악하는 정체불명의 기생 생물이 한국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넷플릭스 6부작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이하 '기생수')는 이런 섬뜩한 상상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 공개된 지 하루 만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스트에서 넷플릭스 TV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퇴근 길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죽기 직전이었던 주인공 수인(전소니)은 마침 그를 숙주로 삼으려던 기생 생물의 침투를 받는다. 기생 생물은 치명상을 입은 수인의 신체 회복에 시간을 쓰느라 정작 그의 뇌를 장악하는 데는 실패한다. 이에 수인은 절반은 인간, 절반은 기생 생물인 변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 기생 생물 조직과 이를 막기 위해 결성된 인간 조직 '더 그레이',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기생수'의 원작은 1988년부터 7년 동안 연재됐던 일본 작가 이와야키 히

토시의 동명 만화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부 이상 팔린 히트작인데, 이번에 시리즈를 연출한 연상호(46) 감독 역시 원작의 팬으로 작품을 접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작가에게 편지를 보내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더니, 다행히 재미있어 하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등 주로 자신의 원작을 실사화해 온 연 감독이 다른 이의 원작을 각색해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원작의 설정을 가져와 한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전소니(33)를 비롯해 구교환·이정현·권해효·김인권 등 연기와 배우들이 출연했다.

'지옥' 'D.P.' 등을 만든 SLI 산하레이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기생 생물 구현은 전체 제작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인공의 오른손에 기생 생물이 붙어 손과 팔이 변형이 있었던 원작과 달리, 한국판 '기생수'에선 얼굴 한쪽 또는 전체가 바뀌는 방식이다. VFX(시각특수효과)를 담당할 텍스터스튜디오의 홍정호 수퍼바이저는 "평범한 인간의 얼굴이 기괴하게 열리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의 임팩트(강렬한 인상)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변종으로서 존재감이 돋보여야 했던 수인은 피부가 팽창하며 표정이 바뀌는 것, 얼굴 축수 근육이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등 디테일을 높였다"면서 "액션은 우리 민속놀

이인 상모 돌리기에 착안해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쓰며 상반신 움직임이 강조되는 모션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이라는 목표를 두고 인간과 기생 생물이 맞붙는 판타지 가득한 가상의 이야기지만,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는 목격하다. 극 중 기생 생물은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지만 관계와 공존의 개념은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수인의 행동을,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기생 생물 '하이드'는 "이상하다"고 표현한다.

수인과 하이드, 두 역할을 모두 소화한 전소니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변하기 전 수인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변종으로 변한

뒤 삶에 대한 의욕과 힘을 얻게 된다. 주변과 관계를 맺게 되고 유대감을 느끼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인데, 이 지점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인간에게 생존은 살아가는 의지, 그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멋있었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이와야키 히토시는 넷플릭스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두근거렸다. 원작 만화가 '자식'이라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의 지혜·경험·기술을 만나 '손자'로 탄생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리즈물 '기생수'는 전개도 역동적이고 템포도 빨라서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했다.

시리즈는 원작 속 주인공 이즈미 신이치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2018년 영화 '아, 황야'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슌다 마사키가 신이치 역으로 깜짝 출연했다. 시즌2를 암시하는 엔딩에 대해 연 감독은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다기보다는 먼저 넷플릭스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시즌2에 대한 구상은 나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원작 캐릭터인 신이치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환희 기자**

코다, LPGA 4연승 ... 26세에 '전설' 반열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벨리 코다(26·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최근 3주 연속 우승을 포함해 올해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벌써 4승을 거뒀다.

코다는 8일(한국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 골프장에서 열린 T-모바일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리오나 매과이어(30·아일랜드)를 4&3(3개 홀을 남기고 4홀 차 승리)으로 꺾고 정상을 밟았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원)다.

이로써 코다는 올 시즌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지난달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그리고 이달 포드 챔피언십과 T-모바일 매치플레이에서 연거푸 정상에 오르면서 4연승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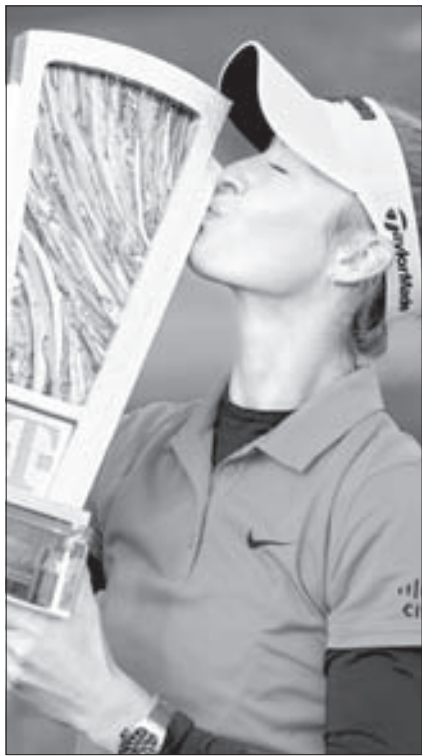
코다는 1월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우승 이후 휴식을 취했다. 아시아인 스윙으로 펼쳐진 2월 혼다 LPGA 아일랜드와 3월 HSBC 여자월드 챔피언십, 블루베이 LPGA를 모두 건너뛴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부터 레이스를 재개했다. 엄밀히 말하면 4주 연속 우승은 아니지만, LPGA 투어는 코다의 이번 기록을 4연승으로 공식 인정했다.

역대 LPGA 투어에서 4개 대회 연속 우승은 앞서 6명이 기록했다. 고(故) 마키 라이트(2020년 타계)가 1962년과 1963년 두 차례 4연승을 기록했고, 1969년에는 캐시 윌트워스(2022년 작고)가 뒤를 따랐다. 또 셸리 엔글혼(2022년 별세)도 1970년 4연승의 주인공이었다.

이어 낸시 로페스(68·미국)는 1978

년 역대 최다인 5연승을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안니카 소렌스탐(54·스웨덴)이 2001년 4연승을 거뒀고, 2004~2005년 두 해에 걸쳐 로페스와 같은 5연승을 완성했다. 이어 로레나 오초아(43·멕시코)가 2008년 4연승을 기록했다. 모두 LPGA 투어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전설들이다.

올 시즌 5개 대회에서 벌써 4승을 거둔 코다는 상금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우승 상금 3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4억원, 포드 챔피언십 4억5000만원, 이번 대회 4억원까지 모두 16억원을 벌었다. 공동 16위를 기록했던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받은 3000만원까지 합하면 1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코다가 19



4연승을 달성한 후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벨리 코다. 세계랭킹 1위 코다는 올해 출전한 5개 대회에서 4승을 거뒀다. LPGA 투어에서 4연승은 16년 만의 기록이다. [AP=연합뉴스]

개 대회에서 벌어들인 총 상금은 19억원이었다.

준결승에서 만나린(29)을 꺾고 올라온 코다는 김세영(31)을 제친 때과 이어와 1대1 대결을 벌였다. 전반은 코다의 흐름이었다. 9개 홀을 도는 동안 3홀 차로 앞서가며 기선을 잡았다. 이어 10번 홀(파4)에서 먼 거리의 파퍼트를 넣어 보기를 기록한 매과이어와의 격차를 4홀로 벌렸다. 또, 파4 12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5홀 차로 달아났다. 수세로 몰린 매과이어는 13번 홀(파3)과 14번 홀(파4)을 잇달아 따냈지만, 파4 15번 홀에서 파 퍼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먼저 파를 기록한 코다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코다는 "지난 3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 코스는 파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서 페어웨이와 그린에만 공을 잘 안착시키고 실수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고봉준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물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k: Lee I have problem with my rent this month.
마크: 리 이번 달에 월세를 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Lee: What's the problem?
리: 무슨 문제인데?

Mark: I'm short this week on my paycheck.
마크: 이번 주 임금이 적게 나와서요.

Lee: Oh what happened?
리: 아무슨 일 있었어요?

Mark: I was out two days with a knee injury and lost

two day's pay.
마크: 무릎을 다쳐서 이틀 걸근하는 바람에 이틀 치 임금을 못 받았어요.

Lee: How can I help you?
리: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Mark: I'd like to pay \$725 now and the balance of \$50 in two weeks.

마크: 지금 725달러를 내고 나머지 50달러는 2주 안에 내면 좋겠어요.

Lee: That's okay. Are you up and about?

(one) is short: 돈이 모자라다

(Mark is on the telephone talking to his apartment manager...)
(마크가 아파트 매니저와 전화 통화를 한다...)

리: 그렇게 하죠. 다친 건 나왔어요?
마크: 예. 한데 걸을 때 조금 짚뚝거리요. 샤워하고 나오다 넘어졌거든요.

Lee: Well I hope you feel better.
리: 그럼 몸조리 잘 해요.

리: 그렇게 하죠. 다친 건 나왔어요?
마크: 예. 한데 걸을 때 조금 짚뚝거리요. 샤워하고 나오다 넘어졌거든요.

Lee: Well I hope you feel better.
리: 그럼 몸조리 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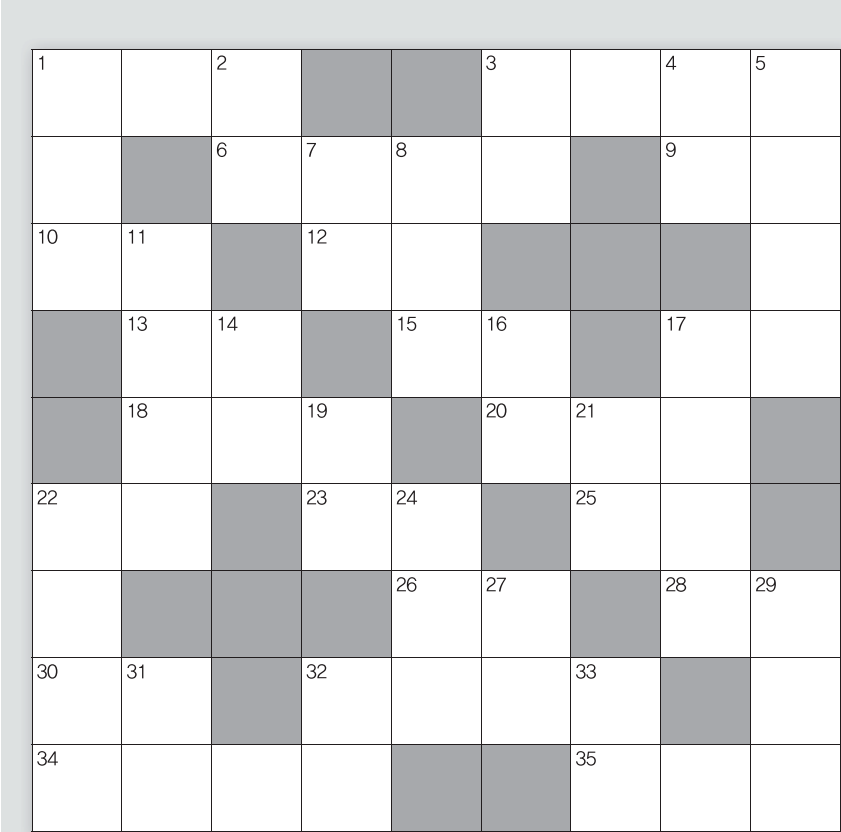
리: 그렇게 하죠. 다친 건 나왔어요?
마크: 예. 한데 걸을 때 조금 짚뚝거리요. 샤워하고 나오다 넘어졌거든요.

"She was out three weeks because of the accident."
(그녀는 사고가 나서 3주 동안 걸근했어요.)

▶ (one) is up and about: (병이나 부상에서) 낫다.
"My grandfather's up and about now. He's feeling better."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회복이 되셨어. 좋아하셨어.)

▶ took a spill: 넘어지다.
"She took a spill on the ice on the street and hurt her ankle."
(그녀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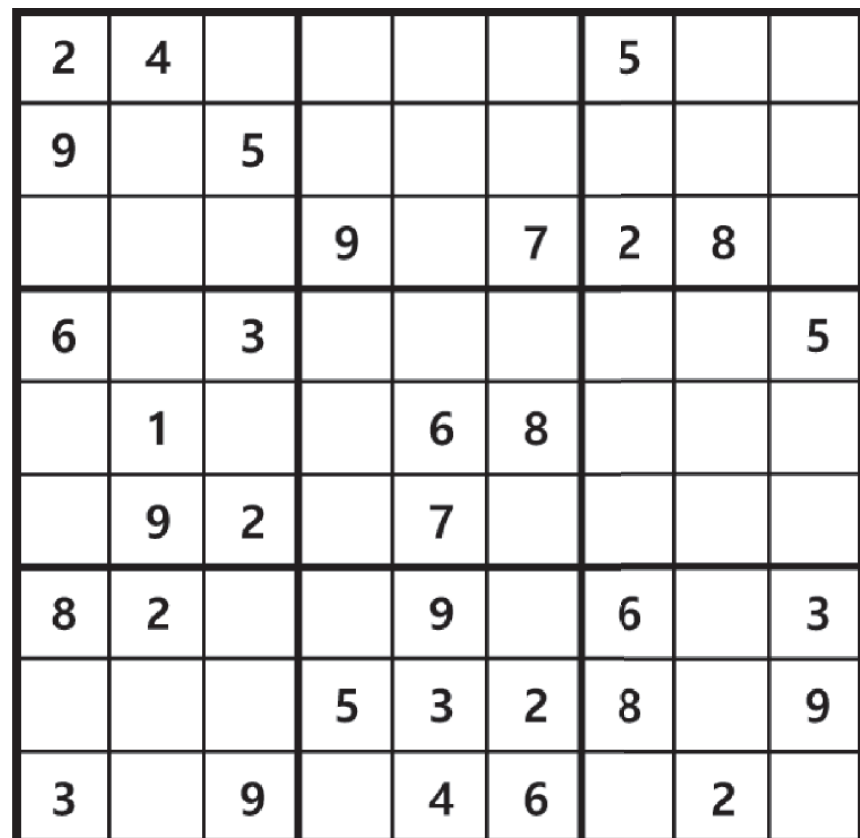
가로열쇠

(1)비계와 살이 세 겹으로 보이는, 돼지의 갈비에 붙은 살. 기름은 하얗고 살코기 부위는 핑크빛을 띠는 것이 신선하다 (3)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6)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름 (9)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 (10)복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은 용기. 목욕통 (12)풀과 같이 푸른 빛깔을 띠는 녹색 (13)물건을 보내 달라고 주문함 (15)해군의 병사 (17)빨 (18)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 (20)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22)신불이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하여 줌 (23)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보관하는 데 쓰는 껍 (25)자기의 체험을 손수 적은 글 (26)땅의 속 (28)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 유월 사리 때 잡힌 새우로 절인 젓갈이 ~도 희고 살도 통통하고 가장 좋아 선호한다 (30)이미지 패티김 나훈아 남진 조용필... (32)산과 바다에 맹세함. 썩 굳은 맹세 (34)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함. □□□□ (35)버드나무의 가지를 비틀어 뽑은 껍질로 만든 피리. 마다가 구슬픈 ~이오니/~소리를 들을 적마다/내 엄마 생각에 더 슬습니다(최신복)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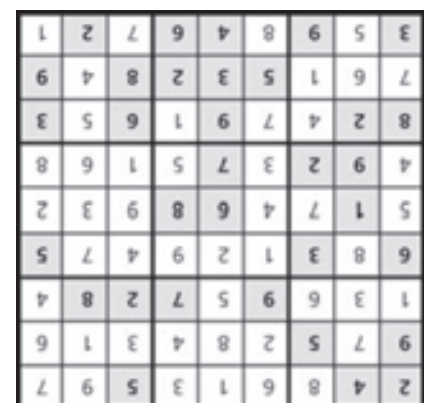
(1)숲에서 산책하거나 온몸을 드러내고 숲 가운데 쉼을 취하는 일 (2)땅과 땅 사이의 경계선을 간단히 나타낸 표. 물건과 물건 사이를 구별 지은 표. 말뚝으로 ~를 대신해 놓았다 (3)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4)어떤 물건을 포장하여 보내는 우편 (5)길은 각각 다르나 도착지는 같음.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음. □□□□ (7)담배를 몹시 많이 피우는 사람 (8)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 소나무, 대나무 따위 (11)아침에 떠나 저녁에 이룸 (14)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 (16)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름 (17)조복에 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때 (19)받은 돈을 거두어들임 (21)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고여 있는 곳. 못이나 늪보다 훨씬 넓고 깊다 (22)갑수룩 접접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 관소리 명창의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었다 □□□□ (24)관광사에서 민간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서류 (27)산에서 내려옴 (29)기름 등 액체를 병에 넣을 때 필요한 기구 (31)거두어 감 (32)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33)사나운 범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CVS: _____	카드 유효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쇼핑**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사팩센터 | DC 건물 | 창고 | NNN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팩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식당 | 프렌차이즈 | 컨트렉터 | 도매 | 카와시 | 호텔 | 그로서리 | 코인런드리 | 리커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과 E2비자 바이어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노하우를 알아 다음세대를 이어갈 30세, 40세대의 한인 바이어를 찾을 수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추세입니다. 현재 시중의 사업체 바이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현명한 바이어들이라서 여러가지 재정 및 리스 상황이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는 매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FEATURED LISTING

<p>MD 56,000 S/F Warehouse \$5.8M</p> <p>6 Acres, Charles Co 8 Loading Docks, CSX 기차역, 26,000 SF, 연 \$400K 인컴, 9,000 SF 증축가능, 공동투자 가능</p> <p>Pending</p>	<p>SUNOCO Gas Station \$1.9M</p> <p>건물 + 비즈니스 포함, 땅 0.76. MD PG Co. 연 \$15만인컴, SBA 용자가능, DC경계선, 하루3만대 교통량</p>	<p>7-Eleven w/Gas Station \$1.6M</p> <p>C-Store w/Gas Station 땅 1.2에이커, 연 \$78,000인컴 하루3만대 교통량, 3,000 S/F VA Suffolk, Absolute NNN</p>
<p>Popeyes NNN \$2.1M</p> <p>CAP 7%, 연\$149K 인컴 Absolute NNN Lease 땅 0.65. 2,700 S/F MD</p>	<p>Starbucks NNN \$3.2M</p> <p>CAP 5.25%, 2024년 새건물 하루 교통량 76,000대 땅 1.3 Richmond, VA</p>	<p>Shopping Center \$1.4M</p> <p>CAP 7.3% 연\$100K인컴 T-Mobile, 3 테넌트 땅 0.6 Chesapeake</p> <p>Pending</p>
<p>Cafe Bakery \$1.3M</p> <p>연\$2.4M매상, Franchise VA, FX 카운티</p> <p>Pending</p>	<p>Car Wash \$1.1M</p> <p>연 \$250K 인컴, SBA 용자가능 Car wash w/Gas Station C-Store 깨끗하고 안정된 지역 매상매년 증가 중, 보시면 반함</p>	<p>Japanese Sushi \$350K</p> <p>연\$700k 매상, 35년 운영 스시 전문, VA, FX카운티</p>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아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기\$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안내광고
중앙일보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경력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와주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잡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혜택
미라클터치로 살균
향문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극지극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관 요양력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침질방 효과 탄소열선 일월의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환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를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를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를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펫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특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특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특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특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